

전남 드래곤즈 대변신... '유럽형 클럽 시스템' 도입



“감독이 선수 이적·연봉 등 총관리”

■ 허정무 감독 일문일답

“유럽형 선진 클럽 시스템을 정착 시키겠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1일 광양제철소 백운대에서 허정무 전남 감독에게 선수단 운영의 전권을 맡기는 파격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자금이 걸림돌... 우선 유소년클럽 위주 운영”

올 시즌 FA컵 우승으로 2007시즌엔 K-리그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까지 겸해야 하는 허 감독으로서 늘어난 권한만큼이나 책임감도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계약 등 많은 부분의 권한이 온 만큼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골격을 만드는 게 우선 과제다. -클럽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금력이다. 자금력이 풍부해야 필요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클럽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도입·활용할 수 있다.

로 키워나가고 매년 4명 이상씩 영입할 계획이다. 이들이 3~4년 뒤에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K-리그가 동시에 열리는데, ▲많은 선수층이 거점이다. 두 대회를 동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층이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

“이천수 J리그행 추진”

■ '스포츠타운' 보도



해외 진출을 추진중인 이천수(25·울산 현대·사진)가 일본 프로축구 J-리그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영입 대상에 올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EPL 3인방 오늘 또 동시 출격

발목 부상 이후 100여일의 재활 끝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25)이 이틀 만에 재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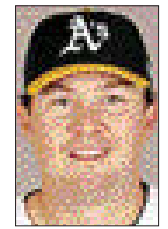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스톤빌라전에서는 루니가 벤치에 앉았다가 후반 20분 박지성 대신 교체돼 투입됐다.



발보다 손이 앞선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25일 오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홍명보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06 PUMA 자선축구경기'에서 사랑팀의 홍명보(오른쪽)가 손으로 백지훈의 드리블을 막으려 하고 있다.

KIA 용병 에터튼 연봉 25만 달러



KIA타이거즈는 24일 2007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활약할 세스 마이클 에터튼(Seth Michael Ether-ton·31·우투우타·사진)과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25만 달러에 입단계약을 맺었다.

185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에터튼은 2006시즌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에서 2경기에 출장, 7.2이닝을 던져 1승 1패를 기록했다. 미국 남가주대를 졸업한 에터튼은 1998년 에너하임 에인절스의 1라운드(18번째) 지명으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NFL 하인스 워드 1천야드 전진 눈앞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특급 리시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인 시즌 1천 야드 전진을 눈앞에 뒀다.